

## 꿈과 행복이 가득... 나만의 작은 세상으로 떠나자



### 돌하우스 만들기

보고 있으면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마법의 세상에 한발 들여놓은 느낌이다.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자 집이 스르르 줄어들어 손으로 지붕을 짚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 게 아닐까. 집 안에 놓인 귀여운 가구들을 보면 일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돌하우스(doll house)에는 살고 있는 사람만 없지 그 외의 것은 다 있다. 아침을 먹고 방금 일어난 듯한 식탁, 욕조에 물이 넘치는 모습 등 어떤 상황이든 만들어 낼 수 있다.



◇모리타 준코(오른쪽)가 웨딩케이크 만들기를 지도하고 있다.



그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시된 작품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의 한 장면을 표현한 것이 있었다. 모리타의 말대로라면, 이 작품을 만들면서 혹은 보면서 자신이 동막골 주민들과 어울리는 상상에 빠져드는 것이 작품을 온전하게 즐기는 자세다. ‘돌하우스월드’의 강사인 김정미씨는 “손재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든다는 열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머리와 손을 열심히 쓰게 되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다. 작은 물건을 만들기에 열중하게 되므로 치매 예방도 된다. 이 때문에 일본에는 50~60대 여성들이 돌하우스 만들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어린이는 상상력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작품을 완성한 뒤에 성취감도 상당하다.

돌하우스월드(www.dollhouse.or.kr, 031-248-2003) 한국미니어처돌하우스협회(www.miniature.or.kr, 02-888-1641) 등 관련 단체에서 제작 강좌를 열고 있다.

◆돌하우스란=16세기 초부터 독일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초기에는 귀족층의 비싼 취미였지만 17세기기부터 저변이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12분의 1로 축소된 크기로 만들지만 24분의 1, 48분의 1 크기의 작품도 있다.

기본 구성은 건물, 가구, 소품이고 제과점, 야채가게, 서점 등 아기자기한 가게가 단골 소재로 꼽힌다. 목재와 점토로 각각 건물과 가구, 소품을 만든다. 작품에는 나타내놓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유형별로는 구조가 닫혀 있는 건물 형태와 열려 있는 무대 형태로 나뉜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2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문화공보관에서 열린 돌하우스 강습에서 일본의 돌하우스 작가인 모리타 준코가 웨딩 케이크 만들기를 지도하고 있었다.

수강생들은 혹시 얼룩이라도 남을까 봐 손을 깨끗이 닦아 가며 재료(모델링 페이스트)를 정성껏 반죽했다. 간단한 3단 케이크였지만, 참가자들은 실제로 파티시에가 된 듯이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 만들기에 몰두해 있었다. 케이크 데코레이션 크립은 딱 좁쌀 크기다. 한 수강생은 “왜 이렇게 안되냐”며 웃음만 짓다가 모리타가 직접 나서자 신기한 표정으로 익숙한 손놀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돌하우스에서 인형(doll)을 찾기는 쉽지 않다. ‘찾을 수 없다’는 게 좋다. 여기서 쓰인 인형이라는 말은 ‘작은 것’을 뜻할 뿐이다. 그보다는 인형에 알맞은 정도로 작은 물건과 집이라

는 게 돌하우스의 정확한 의미다. 인형을 만들어 넣으면 되지 않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

그러나 돌하우스 작가들은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인형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리타는 “돌하우스는 모양뿐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느낌을 어떻게 전해줄까를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한다”며 “작게 만들어 내는 데만 집착하다 보면 돌하우스의 참된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돌하우스의 독특한 매력에 발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모리타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표현할 수 있다”며 “손재주가 뛰어나 똑같이 만들어 내기보다는 머리에 떠오르는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내면

작지만 상상이 농축된 세계는 무한대... “손재주보다 열의가 더 중요”

어린이엔 상상력과 집중력 발휘... 노인들 정신건강에 좋아 치매 예방

### ■ 디카 패밀리

딸 태희(4)와 조카 유정(3)이가 싱크대에서 물장난하는 것을 찰칵! (최미용·34·경기 수원시 팔달구)

### “목욕탕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애완동물의 재미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세계닷컴(www.segye.com)에 올려 주세요. 선정작을 ‘디카패밀리’와 ‘펫포토’로 신고 도서문화상품권(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 ■ 펫포토

### 단풍잎 입에 물고~



저희 집 강아지가 단풍잎을 가득 문 모습~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김해진·23·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 숫자 퍼즐게임 '스도쿠' (數獨)

스도쿠(數獨)는 ‘숫자들이 겹치지 말아야 한다’ ‘한 자릿수’라는 뜻의 일본어 조어대로, 가로와 세로 9칸씩 총 81칸 정사각형의 가로·세로 줄에 1~9의 숫자를 겹치지 않도록 적어 넣는 단순한 게임이다. 또 큰

사각형 안에 있는 가로·세로 3줄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서도 1~9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게임은 이미 숫자를 적어 놓은 일부 칸들을 제외한 나머지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제공 : 도서출판 황금나침반

		4	9					
4	5				8	7		
9	3		6	4	1			
8			1				6	
		2	5	8	7			
1	Ⓐ		3				4	
7	1		9	3	2			
8	9	Ⓑ		6	4			
		3		7	Ⓒ			

초급

			8	4				
7	1	6		9	3	5		
3		Ⓓ				9		
6	4					2	5	
				Ⓔ				
2	5				Ⓕ	3	8	
8						7		
6	3	5		1	9	4		
		3		6				

중급

		3						4
1	6							2
			9	1				
	Ⓖ	5	8	4	9			
			Ⓖ					
		7	1	5	6			
			6	3	Ⓖ			
9	1						6	2
	4						9	

고급



세계일보는 스토쿠 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문제를 풀 뒤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예 a=4, b=9...)를 이메일(sudoku@segye.com)로 다음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 주소 명기). 세계일보 문화생활부 내 선정위원회를 통해 매주 정답자 중 8명을 뽑아 도서문화상품권(3만원 상당·3명)과 '가로로 게임'(5명)을 드립니다. 가로로는 더한다는 '가(加)'와 영어 'cross'의 일본식 발음 '쿠로'가 결합된 이름으로, 글자가 아닌 숫자를 이용한 크로스워드 퍼즐입니다.

지난주 스토쿠 정답·당첨자 명단  
 ▲전용택·충남 금산군 금산읍 ▲김수자·경기 구리시 수택동 ▲맹보경·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상 도서문화상품권)  
 ▲김경래·충북 청주시 용암동 ▲서천수·전북 완주군 삼례읍 ▲허현진·강원 강릉시 초당동 ▲임창근·경기 고양시 대화동 ▲조범식·경기 구리시 수택동 (이상 가로로 게임)

4	6	7	2	5	1	8	3	9
9	2	5	8	4	3	6	1	7
8	3	1	9	6	7	2	4	5
3	9	Ⓖ	1	7	2	5	6	4
7	5	4	6	3	9	1	8	2
2	1	6	4	8	5	Ⓖ	7	3
1	7	3	5	9	6	4	2	8
6	4	9	3	2	8	7	5	Ⓖ
5	8	2	7	1	4	3	9	6

초급

2	9	6	3	7	1	4	5	8
4	7	8	5	2	6	3	9	1
1	3	5	8	4	9	2	6	7
5	4	3	1	6	2	7	8	9
7	Ⓖ	2	4	9	5	6	1	3
6	1	9	7	3	8	5	2	4
3	6	1	2	Ⓖ	4	9	7	5
9	5	7	6	1	3	Ⓖ	4	2
8	2	4	9	5	7	1	3	6

중급

7	3	5	1	9	8	2	4	6
4	6	8	5	7	2	3	1	9
1	9	2	6	4	3	5	7	8
9	2	1	Ⓖ	8	5	6	3	7
3	8	7	9	Ⓖ	2	6	4	5
5	4	6	7	3	1	8	9	Ⓖ
6	5	9	8	1	4	7	2	3
2	1	4	3	6	7	9	8	5
8	7	3	2	5	9	1	6	4

고급